

폭염 속 우리 가축, 이대로 괜찮습니까?

여름철 가축 관리,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폭염은 가축에게 소리 없는
재앙입니다.

지속되는 폭염은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유발로 식욕 부진과
성장 저하를 일으키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축사 환경을 최적화하여
온도를 낮추십시오.

축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환기 및 냉방시설 가동
으로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최소화합니다.



정전으로 인한 대량 폐사에
대비하십시오.

정전 시 온도 급상승과 유해가스
농도 증가로 가축이 집단
폐사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01

고온에 의한 가축 피해



구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알맞은 온도	10~20℃	5~20℃	15~25℃	16~24℃
고온피해 시작온도	30℃	27℃	27℃	30℃

02

고온 피해는 시원한 환경으로 극복



- | 환경온도 낮추기 |** 송풍팬 가동, 지붕 물 뿌리기, 차광막 설치, 적정 사육두수 유지
- 장기적인 대비로 농장주변에 활엽수를 심어 그늘을 만들어 줌
- | 사료 섭취량 늘리기 |** 소량씩 자주 먹이기, 시원할 때 사료주기, 신선한 물 공급
- | 위생 관리 |** 농장 안과 밖 정기적 소독 실시, 방역프로그램에 따른 예방접종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누리집(chuksaro.nias.go.kr)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

축종별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에 따른 가축관리 방법 제공

더위지수 : 온도와 습도를 활용해 가축이 느끼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값

구분	양호	주의	경고	위험	심각
한우·젖소	72 미만	72~77	78~88	89~97	98 이상
돼지	64 미만	64~72	73~82	83~92	93 이상
가금	63 미만	63~72	73~79	80~90	91 이상



〈 깨끗한 물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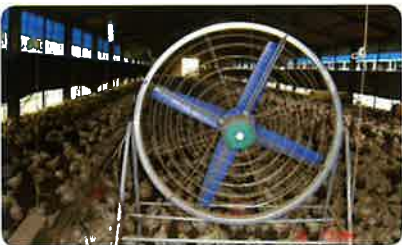
〈 차광막 설치 〉



〈 위생적인 돈사관리 〉



〈 지붕위 물뿌리기 〉



〈 송풍팬 가동 〉



〈 쿨링패드 〉



여름철 축사환경관리



축사 지붕 살수 및 운동장
그늘막 설치로 외부 온도 저감



안개분무기와 송풍팬 병행
사용으로 축사 내부 온도 저감



축사 내 바람이 잘 통하도록
지속적인 환기 실시



물통과 사료조는 수시 세척으로
청결 관리 및 충분한 냉수 공급



갑작스런 집중호우 대비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모기·파리 등 해충 번식
억제를 위한 우사 주변 제초작업

1

한우



- 사료는 변질되지 않게 한 달 이내 소비하도록 적정량 구입 후 소량씩 급여하여 급여횟수 늘림
- 비육우 사료급여 요령
 - 고온으로 인한 사료섭취량 저하에 대비, 기호성 높은 당밀 첨가량을 높이고, 각 영양소 함량을 상향 조정 및 반추위 보호 비타민C나 아미노산을 보강한 첨가제를 급여하여 생산성 방지
- 번식우 및 송아지 사양관리 요령
 - 양질의 조사료 급여와 농후사료 비율을 높이고 고온기에는 더 많은 비타민A와 무기물이 요구되므로 보충 급여하고 번식우는 소금 별도 급여
 - 송아지는 신선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바닥이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게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질병을 예방

2

젖소



- 반추위 산도 유지를 위해 적정량의 조사료를 먼저 급여하고 조섬유 수준은 ADF 18~19%, NDF 25~28% 정도로 조절
- 볏짚보다 질 좋은 풀사료를 급여하며 이때 5~10cm 정도로 잘게 절단해 섭취량 증가시킴
- 사료 내 대두박, 전지면실, 보호지방 등을 첨가, 콘글루텐, 맥주박, 주정박 등과 같은 반추위 미분해성 단백질 사료를 추가해 에너지를 높여주고 중조와 같은 완충제를 섞어주면 사료섭취량 유지와 유지방 감소를 줄일 수 있음
- 소 이동 및 작업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체온 상승 방지

3

돼지



- 지붕단열 보강, 단열페인트 도포 또는 지붕 위 물뿌리기 등으로 온사 온도 저감
- 충분한 환기로 체감온도를 낮추고 냉풍기, 안개분무 등을 설치하여 필요 시 가동
- 최고 온도인 낮 시간 수세·건조 작업을 수행해 돈방 내 온도 낮춤(기화열 이용)
- 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급수기의 수압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물탱크, 급수라인 소독 및 급수온도 20℃ 이하로 유지·관리
- 신선한 사료 급여를 위해 3~7일 분량 주문 및 급여횟수를 늘려 조금씩 자주 급여
- 사료통을 자주 청소하여 사료의 변질 및 유해 미생물 오염 방지
- 돈방 당 사육 두수를 알맞게 하여 적정 밀도 유지(비육돈 최소 0.8㎡/두)
- 돼지의 출하 및 이동 등은 가급적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실시

4

닭·오리



- 단열이 부족한 계사/오리사 등에는 단열재 등을 부착하여 온도 상승 방지
- 윈치커튼 계사는 햇빛의 계사내 유입 방지를 위해 서쪽에 그늘막 설치
- 무더운 한낮에는 지붕위에 물을 뿌려 복사열 유입을 방지
 - * 지붕에 물을 머금은 보온덮개가 있는 경우 습도가 높아져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
- 자연환기보다 환풍기를 이용한 터널 환기가 효과적
- 적정 사육밀도 유지와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
- 배합사료를 오래 보관하면 변질되기 쉬우므로 적은 양을 자주 구입
- 비타민C 및 칼슘 보충 급여로 고온 스트레스 감소와 연관 방지
- 환기팬의 먼지, 거미줄 등 주기적인 청소와 벨트 점검
- 젖은 깔짚은 수시로 교체하여 암모니아 발생 및 호흡기 질병을 예방
- 이동, 백신접종, 선별, 출하 등은 한낮을 피하고 아침·저녁 시간대에 실시
- 사료 급여 시간은 서늘한 시간대로 조정하여 섭취량 감소 방지
- 출하 전 대기시간 최소화 및 과밀 수송 방지
- 여름철 폭염 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정전에 대비 비상발전기 확보 필수
- 고온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대비 출입 및 시설 소독 강화를 통한 질병 예방